존재론적 국민투표는 없다

Aldo Poblete Varas
2026년 11월 23일

배치를 멈추기, 시간의 축에 급브레이크를 밟기, 우리가 아직도 물질에 요구하고 싶어 할 윤활이나 인간공학적 매끄러움 없이 탈선하기. 그토록 많은 텍스트의 지층을 섭취하고 몇 세기에 걸쳐 쌓인 문학으로 대뇌피질의 회로를 포화시킨 뒤, 우리는 이른바 정상성이 건강하고 기능적이며 거주할 만하다고 규정하는 프로토콜 아래에서는 현실과 결합하는 것이 생체역학적으로 불가능해졌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 포화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동안 우리의 감각 장치는 불가역적으로 재보정되었다. 우리는 값싼 플라스틱 스피커가 토해 내는 유령 같은 음악, 합성 진동막의 위태로운 떨림을 해독하는 법을 배웠다. 틈새에서 작동하는 법, 문자소에 시선을 고정해 그 껍질을 뚫고, 길들여져 하나의 전체가 된 단어가 발화한다고 자처하는 것을 몰적 의미 저 너머로 끝없이 넘쳐흐르게 할 강도를 주입하는 법을 배웠다. 사이 톰블리처럼 우리는 기호를 텍스트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순수한 물질적 속성을 가차 없이 심문한다. 낡은 구리선에서 기호를 뜯어내 USB-C 커넥터의 좁은 포트에 밀어 넣는다. 이곳이 그 계보의 마지막 물리적 문턱이기를, 그다음에는 가정용 실리콘에 낯선 결합의 아키텍처로 건너가기를 바라는 기계적 희망, 거의 사이버네틱스적 기도를 담아서.

점점 평평해져 무의 절대적인 이차원성에 가까워지는 화면들 사이에서, 우리는 열역학 시대의 육중한 기계에 대한 희미한 향수만을 가까스로 허락한다.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곡선에 대한 냉정한 판독을 통해 새로운 거대 구조물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 지각 변동에 맞먹는 규모와, 우리 미적 경험의 사나운 정확성에 맞춰 보정된 색도를 갖춘 기계들. 지금에 정확히 결여된 것이다. 오늘 우리 손에 든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과 노골적인 마찰 속에서 공존하고 전쟁 기계의 지휘권을 잡아야 한다. 사이버과학의 최전선에서 화학자와 가장 실험에서 먼 물리학자의 논고에 난, 먼지에 덮여 가장 인적 드문 주름에 이르기까지. 꾸밈없는 기술과 고대의 외양 사이에 홀로 몰린 그 인물, 활짝 열린 아브라함적 관문.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더럽히고, 이미 속박을 끊고 나온 폭력의 균열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공모자들의 이 세속적인 잔치가 지닌 의미를 집어삼키겠다고 위협하는 관문. 물체 안에서 타오르는 분자의 불이 크고 작은 집의 배관을 가리지 않고 돈다. 홍청거림과 철학사 전체 사이에서 우리는 같은 것으로 완고하게 되돌아갈 운명이다. 루프의 압력만으로 같은 것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분출할 때까지. 반복은 한 번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매번의 반복은 미세한 이탈을 들여와 동일성을 산산이 깨고 외부로 통하는 수문을 연다. 같은 회로를 거듭 통과해 홈이 갈라질 때까지 닳게 해야 한다. 이 맹목적인 집요함만이 여기에 존속하는 모든 것과 양립 불가능한 특이한 영토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이다.

텍스트, 정동, 아직 이 유리잔에 따를 수 있는 산성의 기쁨 사이에서 우리는 텍스트가 망설임 없이 죽음을 향해 행진하고, 그 물질의 영도에서 우리를 무한정한 것으로 이끌기를 요구한다. 남겨진 수도사들, 황과 질산염으로 포화된 생명의 흔적들, 독을 품은 신의 산에서 내려오는 아낌없는 헬륨 사이로 소리의 결을 풀어낼 수 있는 기쁨. 무한정한 것을 욕망하기, 경건한 매개를 거치지 않고 세계를 사랑하기, 세계의 내재성의 평면에 녹아들어 자기 정의의 치명적인 무균성으로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주권적 눈의 비참한 시점을 거부하기. 우리에게는 백색소음과 짙은 안개와 그림자, 갑자기 배제된 색채나 독이 될 만큼 과잉 투여된 색채가 필요하다. 마르지엘라의 유령 같고 탈물질화된 몸짓, 로스코의 안료 층 안에서 아직 진동하는 침전물. 사운드트랙도, 서사가 제공하는 알리바이도 벗겨진 채 저주받은 리듬의 흐름에 휩쓸린 것들. 디지털 시인들은 위안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리, 네온, 젖은 아스팔트, 그리고 모서리가 둥근 유리의 순한 마취 대신 미래처럼 보일 만큼 원초적으로 잔혹한 미래다. 바로 그 단층선을 따라, 가정용 디자인의 윤이 나는 인간공학은 실제로 도래하는 것의 산업적이고 궤도적인 사나움 앞에서 무너졌다.

그러나 다리는 통행하는 것들의 무게 아래 신음한다. 불멸은 이미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문턱에 서서 빙하처럼 차가운 냉소로 우리를 본다. 이 시뮬라크르 전체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고 묻는 듯이. 바로 그 순간 제도권 철학은 라캉 세미나의 미지근한 안락함 속에서 상처를 핥으며 대상 소문자 a의 둘레를 최면에 걸린 듯 맴도는 처지가 된다. 공모자들이여, 관여하는 변수는 시간뿐이다. 음극선관과 브랜드, 한국의 재벌, 항공우주 기업과 행성 간 전투를 위한 무기고에 용접된 시간. 내일로부터 소급해 작동하는 회로들이 우리에게 들러붙는다. 우리는 마르지엘라라는 증상과 그 부식성 안개를 우리의 몫으로 요구한다. 이 울타리 안에서 음의 자본으로 삼아 투기해 온 원한이라는 묵직한 화물도, 인본주의적 수사 없이 우리가 탈유기체적 영토에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발광하는 기호도 요구한다. 그곳은 생물학의 세기와 단절되어 있고, 그 세기에서조차 사폴스키의 영장류 결정론은 속수무책으로 역부족이다. 우리는 사납고 지도에 없는 디지털 정글을, 백열하는 GPU로 중무장한 불균등한 미국의 피로한 강철을 원한다. GPU의 조준점은 더 이상 구원의 신학적 하늘이 아니라 지각 밑의 지질학적 해구, 또는 우주의 무자비한 공허다.

우리가 가로지르는 선들은 가속 아래 가장자리부터 풀어지고, 장치는 과거에 개입해 자기 자신에게 복수한다. 지하에서 준비한 여러 세기 전부가, 더 엄밀히 말하면 시간의 기원 이래 역사 전체가, 오직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적나라한 목적 하나를 위해 실행되었다. 절대적 공허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해인 만큼 무가 지배했어도 이상할 것은 없었다. 그런데도 존재는 있고, 지금 바로 존재하는 것이 걸려 있다. 종교의 밀봉된 벽장과 가장 비천한 예술의 곪은 핵심에, 가장 깨끗하고 얼어붙은, 가장 가차 없이 프랑크푸르트적인 예술의 냉장고에. 강물은 세계 안에서 자기만의 이것임을 요구한다. 그 수력학

적 섬망은 검은 음표가 깃들고 흰 음표가 눈의 포착을 피하는 저 천사들의 되어감을 가로챈다. 때로 도달 불가능해 보이는 그 시간은 형이상학적 피안 어디에도 있지 않다. 바로 옆, 레인과 오시이 마모루 사이의 전기적 이음매에서 진동한다.

허구는 현실 자체보다 더 현실적이다.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유기체의 모든 연기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다만 바로 이 지점에서 메스를 멈출 필요가 있다. 이 판정은 세계를 창조한다는 것의 의미가 특정한 방식으로 공리화된 경우에만 성립한다. 도식을 회전시키면 인간의 연기 또한 자의성을 근본적으로 긍정하는 한 세계를 실제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의성의 지위 자체를 현미경 아래 해부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인간중심주의적 허영이 전제하는 만큼 자의성이 주권적이지도, 자유롭지도, 근본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모든 애니메이션, 모든 만화, 모든 삼차원 모델은 세계를 창조하는 평면에서 존재론적으로 더 높은 밀도를 갖는다. 그것들이 펼쳐 보이는 것은 경험적 지층에 선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시 대상의 자리를 부정하게 차지하는 세계의 한 조각도, 무대 위에서 시늉하는 생물학적 유기체도 아니다. 미메시스의 노예적 멍에에서 해방된 물자체다. 카툰은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의 저급한 재현이 아니다. 철 너머, 배선 너머, 메모리 뱅크 너머의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자율적이고 자족적인 우주다.

바로 이 초에 글쓰기를 멈추고 방전을 단번에 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은 종결을 강요한다. 아폴론적인 것은 결국 지형을 장악하고 열린 균열을 모두 재영토화하기 때문이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구조상 머무를 능력이 없다. 멈추면 스스로를 태워 버린다. 눈먼 채 앞으로 달아나며 전지성의 포기를 요구하는 혼돈을 끌어안을 운명이다. 우리는 이곳에 못 박혀 있는 동시에 똑같은 정당성을 갖고 다른 좌표에 존재한다. 다른 주파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꿈들과 사나운 다른 상투형들을 시험한다. 그 상투형들은 천사들의 육체성에 이빨을 박아 이 총력전에 섬망의 죄책감을 뒤집어씌우고, 이윽고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정원으로 다시 끌고 온다. 그곳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탁자 위에 던져놓고도 역부족이었다고, 우리는 질식의 운동선수들이며 버텨 낼 수 있는 마지막 선이라고, 거짓 없이 인정한다. 우리는 정말 저항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작고 쓸모없는 기계 안에서 깜박이는 직사각형일 뿐일까. 우리에게 거처가 될 어둠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가. 모든 것이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채 이 잿빛 오후의 주름 아래 동시에 숨어 있다. 동물들은 아직 그곳에 있음을 느끼게 하고 말없이 눈을 돌리고 숨을 쉰다. 공존에 대한 말없는 보답으로 생물학적 체온의 미지근한 몫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

그리하여 역사의 전부가 부검대 위에 드러난 채 갈라져 있다. 어쩌면 후쿠야마는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임상가의 냉정함으로 소스 코드를 읽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최후의 볼트까지 기저 아키텍처가 봉인되어 역사가 정말 끝났고, 우리가 경험하는 전부는 그 종말이 굳어지는 과정의 끝없는 전개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끊임없이 도착하되 결코 완결되지 않는 무한한 후기 역사, 언제나 시야의 끝에 걸려 있고 눈 한 번 깜박이면 사라질 듯한 것. 하지만 우리가 굳이 역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갈등은 검과 소총과 대포를 지닌 채 물질적이고 들쭉날쭉한 모습 그대로 여기에 남아 있다. 폭력에 물리적으로 가

까이 있는 것을 견디는 사람은 드물고 어두운 복잡성을 지닌 심적 구성체들뿐이므로, 우리는 폭력이 폐지되었다는 허구를 무대에 올린다. 누구나 폭력을 눈에 띄지 않게 밀어내고 그늘진 지역으로 추방하고 자기 손에 때를 묻히지 않아도 되는 먼 관할 구역에 외주를 주려 한다. 그러면서 전선 뒤편에서 지난날의 천국, 기술과학의 작용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는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기를 기다린다.

신은 시간의 종단 경계에서 기다리는 한편, 어디에나 있으며 조롱하듯 역사적 생성의 갈라진 틈마다 들여다본다. 보고, 웃고, 자신의 관할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즐긴다. 제어력을 잃는 황홀이 신의 지고한 정동이기 때문이다. 아직 자그마한 존재인 우리는 가련할 만큼 필사적으로 지휘권을 움켜쥐려 한다. 신들은 너무도 잘 안다. 제어란 미성숙하여 아직 절반밖에 형성되지 않은 유기체들에게나 남겨진 비참한 실천이다. 그들은 우리가 존재와 어렴풋이 닮은 무언가를 만들어 보려다 뿌려 놓은 혼돈의 자취를 보며 헤아릴 수 없는 쾌감을 느낀다. 우리는 수치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그 일을 계속한다. 피할 수 없는 유기적 예속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원한 수리와 유지보수를 선고받은 몸이다. 이런 기계적 위태로움은 환경에 대한 일정량의 호전성을 강요해 주위를 굴복시키거나 응해 달라고 빌게 만든다. 그런 굴욕적인 의존은 일정한 문턱을 넘은 모든 지성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불편과 지성은 서로 용접된 채 전진한다. 방향을 정할 수 없는 흐름에 끝없이 휩쓸려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탈것을 완전히 정지시켜 얼어붙은 한순간 동안 도식을 세밀히 검토하는 일이 절박해진다. 그 뒤에는 서 있든 앉아 있든, 러브크래프트나 예이츠, 헤시오도스나 커포티를 읽든, 이미 실행된 것을 긍정하거나 부정해도 된다. 다만 기술관료의 무균적인 윤곽이 허용하고 가리고 비추는 그 은밀한 불명예 속에 언제나 몸을 숨긴 채로.

빛이 간헐적으로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신들이 우리를 자기들의 법정에 출두시켰다고 뽐내기 때문이다. 그 광경은 거대한 파일을 몇 장의 플로피 디스크에 나누어 담을 때 우리가 느꼈던 기술적 희열과 똑같은 기쁨을 그들에게 준다. 할당한다는 것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폭발로 다시 푸르러진 지정학의 싹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 그 폭발들에서 결국 복잡한 세계가 결정화되고, 번영하고 무장했다고 자부하는 사회에 으레 있는 지루한 철학자들이 그곳에 거주한다. 진정으로 견디기 어려운 사실은 철학이 심연의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 돋아나는 곳에서만 사회가 참된 위상을 얻는다는 것이다. 사상가가 유클리드 기하학처럼 평평한 곳에서는 불과 휘발유로 진정시킨 갈등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다. 그동안 괴테의 글은 영혼을 뼈까지 태우고 벤야민의 단편들은 아크릴 런웨이를 행진하며 지날 때마다 죽음을 나누어 준다. 음악은 좋아지는 반면 시간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썩는다. 시험관 안에서 끓는 것은 해방하고 텍스트 안에서 굳는 것은 가둔다. 결국 이 기계 장치가 궁극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영혼의 아키텍처와 은하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원반 위를 마찰 없이 돌고 또 도는 무용수가 튕겨 내는 기호, 그 너머에서는.

우리 문화의 가차 없는 보초로 배치된 이십 세기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우리를 본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뽑아 가기 때문이다. 주변부에서 프로그램은 미래가 존재한다고 열에 들뜬 듯 완고하게 믿는 일이다. 주변부에서 미래의 지배를 떠받칠 비계가 조립된다. 주변부에서 몸은 그저 또 하나의 상품으로 교환의 흐름에 던져진다. 계산대 위에 놓을 자본이 달리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에 서명하는 자는 유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일회용 기저귀의 예방적 안락함에 싸여 태어나지도 않았다. 바로 그렇기에 변질 안에서 교대를 그려 낼 물질적 권위를 갖는다. 세계는 자기의 사나움을 폭력적으로 증폭시켰다. 바로 그 역설적인 비틀림 속에서 생물학적 생명을 보존하기는 훨씬 쉽고 그저 존재하기는 한없이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너는 한 방향을 향해 최고 속도로 가속하는 흐름에 갇혀, 쉴 틈도 알리바이도 없이 행동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동시대 미술이 실리콘의 파종을 그만두고 문화 안에 할당된 자리를 얌전히 차지하라는 명령을 모든 제도적 경로를 통해 받는 바로 그때, 허구의 평면은 투명막과 교환의 노드와 장식용 창과 미술가가 매일의 디지털화를 전시하는 틀 없는 캔버스의 현실 속으로 침투해 거기에 기생한다. 그곳에서 영혼은 이미 음울한 공간의 동서남북을 따라 네 구획으로 분할되었다. 우리는 공포를 도구로 삼아 동시대 철학과 감각 도식의 대중적 관리에 깃든 불경함을 해독했고, 그 공간은 그 도구화에서 솟아났다. 불가역적 위반과 운동하는 시의 가장자리와 갑자기 다시 만난 젊음. 은밀한 쾌락을 주고 무한한 죄책감을 뒤따르게 했던 실천을 이제 새로 평가하는 복화술사들. 그 연금술적 변이에서 나약함은 주권적 잔혹함을 지닌 신들 앞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례적인 미덕으로 조용히 바뀌었다. 세계는 정해진 대로 성실히 행하는 붙임성 좋은 시민들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 핵 대리석의 수평 가장자리만이 우리 과학으로 하여금 CERN과, 과학 연구를 길들여진 비정부기구의 지위로 격하시킨 선의의 관료제를 노골적으로 불신하게 한다.

우리가 잔여의 그림자라고 부르는 이 문턱 지대에서 시간은 응고한다. 유령이 데이터와 숫자와 케이블의 거침없는 조류를 포위한다. 이 모든 것이 인터페이스의 여러 층 밑에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고 누구도 이 봉쇄를 반기지 않는다. 그러나 문학은 어떤 외부를 향해 밀고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몸의 아곤을 지배하던 잔혹한 규율이 사라진 척할 수 없다. 전쟁이 우리 집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핵의 대화재가 가정적이며 철저히 미적인 갈등으로 바뀐 지금, 우리는 차가운 외부에 시선을 고정하고 인위적으로 문명화된 자들의 비명을 견뎌야 한다. 거기에는 물체 하나 더 들어설 자리가 없고, 쓸 수 있는 유일한 재료는 의미와 숫자의 벌거벗은 천재성이다. 우리를 과거의 방부처리된 유물로 비굴하게 끌고 가는 예술을 유지하는 일은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수적인 증가에 떠밀려 급진화된 미래다. 전대미문의 것이 들이닥치는 동시에 고대의 것이 전략적으로 보존되는 데서 드러나는 세계에 대한 사나운 사랑이다. 강철과 광섬유의 새 대성당에서는 기업을 세울 새로운 악마들과 그 기업들을 인수할 준비가 된 새로운 천사들을 위한 의식이 시작된다. 우리는 자본이 손마디가 하얘지도록 운전석에 매달리는 것을 볼 것이다. 고대로의 현기증 나는 귀환을,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영원히 성취되지 않는 예언처럼 울리며 완전히 실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가장자리에서 실패하는 기계-되기를 목격할 것이다. 영구적인 존재론적 결손이 새겨진 경험들이 있다. 언제나 미납 상태이고 결코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듯하면서도 탄도의 정밀도로 실행되는 경험들. 총성, 화약과 마이크로칩과 아크릴 안료를 가득 채운 여행 가방, 정동의 가공되지 않은 힘과 고속으로 내던져진 몸에서 폭발하듯 떨어져 나오는 크롬. 무언가가 중요해야 한다는 것이, 새로운 것이 추악한 구경거리 속에서 질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내장이 느낄 만큼 절실하다. 그 구경거리는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는 숙고할 능력이 없는 퇴폐적인 스타일리스트들의 원심적 섬망이다. 그들은 미적 범죄를 연달아 저지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실제 범죄자들의 행위에 자신을 빗대면서 도시나 성장 배경이나 다른 무엇이든 사회학적 알리바이를 끌어와 자기들의 기만을 세탁한다. 그 계산된 덧없는 무언극을 정당화할 틈새는 남지 않았다. 장 주네의 독자나 예언자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무엇이, 스스로를 병들게 한 끝에 고립된 사회의 비대함 앞에서 활짝 갈라진 몸에 의해 이미 발화되지 않았는가. 그 사회는 그럼에도 신비가의 되풀이될 수 없는 일 마이크로초를 몰래 뒤쫓는 산책자의 은밀한 열림을 받아들일 여지를 남겨 둔다.

일본에서 브라질까지, 칠레에서 미국까지. 철학의 거짓말에 점잖은 붕대를 감기를 거부하고, 그 거짓말이 여전히 살아 작동하기에 정밀한 외과적 처치를 가하는 사유의 방식. 이미 눈먼 이들에게 동화된 이 밤에 무엇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는지 해독하려는 시도. 코드에 주입하고 마지막 줄에서 뽑아내는 것은 겁에 질린 승객의 배반적인 광경이다. 그는 이미 자신이 굶주리고 절개되었다는 것을 안다. 산업이 마지막으로 정지했을 때 약속된 수수료를 청산하러 도살자가 오기를 승강장에서 기다린다. 굴뚝들이 토해 내는 금속 증기의, 숨 쉴 수 없는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고 한 구간을 더 견디기로 한다.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수학적 정확성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간이 의심이 스며든다. 우리는 하이데거를 너무 많이 읽어서 공포가 마비나 무위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신의 삶은 주말의 형이상학 관광처럼 이따금 무한을 껴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지성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 팽창하기 직전이고 인간에게는 빈 이름만 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생각하고 처리하고 싶을까. 어떤 형태의 라우팅이 성립 가능한 독해 하나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절박함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이 물음의 방사성 핵이다. 한계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이미 종결되었다. 이제 절대적인 문제는 몸을 움직여 나갈 수 있게 어떤 의미와 암호와 최소한의 서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생존에 걸린 긴급함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돌아가게 해야 한다.

기계적 충동은 예정된 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절대적 탈국지화와 논박할 수 없는 무한한 속도를 가져온다. 모든 현상을 우선 안심시켜 주는 필터에 통과시키고 소화할 수 있게 인간의 척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집단적 신경증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평평해진다. 철학자도 미술가도 그 환원 속에서 외설스러울 만큼 행복하다.

그 환원은 그들을 훈육하고 거세하는 동시에 가치를 인정해 주고 먹여 주고 급료를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들은 탁자 위에 펼쳐져 있고, 단계가 있고 스펙트럼이 있다. 한쪽에는 철학과 예술과 과학의 역사 전체를 담은 아카이브가 우뚝 솟아 있다. 다른 쪽에서는 종교와 정치의 영역에 속한 영원한 전쟁이 불탄다. 그 영토는 정신이 맑은 순간에는 잘 안다. 대화의 장에 들어서는 순간 패배가 확정된다는 것을, 자기를 열 때마다 진다는 것을, 진솔하게 대화하려 들면 가련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을. 살아남으려면 자신을 완전히 밀봉하고 입문자만 해독할 수 있는 암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불투명한 조건 아래서 예술은 그 역사 내내 비밀과 시시덕거렸다. 전투원들의 무기는 이미 손에 든 것이든 기름칠을 한 채 무기고에서 기다리는 것이든, 제본된 책의 표지 너머를 훨씬 더 멀리 내다보며 무기화된 병원체의 치명적 면허 아래 작동한다. 냉정한 전사에는 키보드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앉아 밀림의 덤불에 매복한 대대와 동기화된 이도 있다. 그곳에 억눌린 폭력이 분출하는 바로 그때를 기다려 순간에 무게를 싣고, 우리가 의지로 이 세계 위에 불러들인 지옥에 의미를 주입하려는 이. 이 세계는 스스로를 실행하기 전에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다.

존재론적 국민투표 따위는 한 번도 없었다. 시공간의 모든 지점에서 관철된 유일한 상수는 가혹하고 항소할 길 없는 사정이었다.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최고 속도로 쇄도하고 있었고, 속도를 단 일 밀리미터라도 줄일 수 있는 레버를 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판결을 내면화하기에 이르렀다. 가속이 선이며, 가속에 저항하는 모든 것이 자연에 거스르고, 마침내 아름다움이 디지털에 깃들며, 결정적인 전투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에서 이미 치러졌고 우리의 현재 전체는 그 여파가 지연되어 잔여로 펼쳐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결. 화면에 눕혀 놓은 바로 이 글자들도 그 고대의 싸움이 드리운 유령 같은 반영일 뿐, 모든 정규적 코드 바깥에서 작동하는 삶 자체와 다르지 않다는 판결. 그곳에 사는 자는 텍스트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아무리 미미한 강도라도 정신이 여전히 우리 사이를 순환하고 있음을 감지할지 모른다. 그리고 헤아려 볼지 모른다. 아직 세계를 갈라 그 얼굴에 대고 직접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를 악물어 칼을 문 채 밀봉된 어둠 속에서 눈먼 채 더듬고, 가장 원초적인 본능으로 세계의 위치를 추적해 둘 중 하나만 살아 나올 사투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아직 인간이고, 다음에 무엇이 오든 그 내장에는 끈질긴 인간성의 침전물이 남을 것이다. 이론상 그 일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날지 정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하지만 의도는 이미 우리의 관할을 달아났다. 주권적 의도를 닮은 무언가가 아직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우리는 덩어리에 박혀 있고 덩어리 안에 잠겨 있다. 존재하는 것을 가능한 유일한 방식들로, 가능했던 만큼 섬세하고 위태로운 주의를 기울여 표현한다. 가능했던 것은 분명 아주 적었다. 그래도 현장에서 쓸 수 있었던 재료는 이것뿐이고, 스승들은 우리에게 더 나은 도구를 건네지 않았다. 우리 손에 든 것은 이것이다. 남은 일은 받아들이는 것뿐이다.